

반가사유상 재현해 천불전 봉안

군산 동국사, 미륵보살 · 천불 점안법회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가 천불전 미륵보살 및 천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7월 26일 동국사 천불전에서 열린 점안법회는 순천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을 증명법사로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을 비롯해 염불사 행담 스님, 보천사 의종 스님, 수도암 무진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종범 스님, 종혜 스님, 자운 스님 등 벽송문도회 스님, 불자 150여 명이 동참했다.

종걸 스님은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여러 스님과 불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동국사 천불전의 주불인 미륵보살상은 국보 78호 미륵반가사유상을 3D로 재현해 봉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무역전쟁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단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넘어서 일본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극일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염불 철야정진, 삼매 이끌다"

고창 선운사, 동효 스님 염불수행 봉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7월 27~28일 '동효 스님과 함께하는 아미타 염불수행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설법전에서 봉행된 이번 철야정진에는 임실 상이암 동효 스님의 지도로 그동안 상이암에서 철야정진을 이어온 불자들과 선운사 관음회 등 150여 불자가 동참했다.

입재식에서 선운사 기획국장 진용 스님은 "선운사는 개산 이래 선교가 이어져 내려온 수행도량"이라며 "유서 깊은 도량에서 철야정진에 임하는 불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동효 스님은 "습관이 쌓여 업이 된다. 처음 염불하는 법을 제대로 익혀 수행정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모든 알음알이를 내려놓고 삼매에 들기 위해 간절하게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철야정진은 절을 하며 염불하는 배불염불, 줄을 지어 걸으며 염불하는 경행염불, 자리에 앉아 염불하는 좌념염불이 각각 30분씩 교차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USB 음반 보급 쉼 없는 문화포교"

Interview

7집 찬불음반 낸 자명 스님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길 위의 연인' 등 9곡 수록
불교음반 최초의 USB 앨범
내년 6월 뮤지컬 앵콜 공연

'문화공양주'로 불리는 자명 스님(영덕 기원정사 주지)이 7집 음반 '길 위의 연인'을 발표하고 음악을 통한 문화포교를 이어가고 있다.

땡큐 붓다콘서트,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를 비롯한 과감하면서도 실험적인 문화포교를 이어왔던 자명 스님이 1년여의 작업 끝에 발표한 이번 7집 음반은 불교음악계 최초로 USB 음반으로 발매됐다. 또한 멜론, 벅스, 지니 등 디지털음원 포털에 음원을 모두 올렸다.

한국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 정서인 한(恨)을 대중음악에 접목시킨 곡들로 구성된 이번 음반에는 '길 위의 연인(심재건 작곡, 서희석 작사)' '아버지(김도연 작사 · 곡)' 신곡과 '향심' '연꽃피어 오르리' '가야지' 등 불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 찬불가를 포함한 9곡을 기존에 발표한 42곡과 함께 실었다.

"우리 불교의 저변은 여러 면에서 볼 때,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불교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문화를 이용한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음반을 비롯해 제가 그동안 이어온 일련의 노력들은 '문화포교'라는 큰 불사의 성과와 함께 포교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온 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찬불가 음반 1집 '연꽃을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을 발표하면서 음악을 통한 문화포교를 시작한 자명 스님은 2013년부터 '땡큐 붓다콘서트'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 등 매년 새로운 문화포교 프로젝트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공양주'로서의 원력을 회향해왔다. 특히 지난 6월 16일 서울 더케이아트홀에서 있었던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는 대작불사로 회향했다.

'문화공양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자명 스님은 "문화포교를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려고 한다. 불교에 국한되지 않은 문화교류를 통해 자연스러운 포교를 하고 싶다"며 "올 가을 국악인 등 다른 장르의 작가들과 함께 하는 인문학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공연한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의 앵콜 공연을 내년 6월 중으로 공연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7집 음반이 점점 불성에서 멀어지는 오늘날의 우리 영혼을 달래고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자명 스님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가장 불교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며 "우리 불교가 가진 우수성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우수한 문화적 콘텐츠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문화포교의 원력을 밝혔다.

이번 7집 음반이 USB 음반으로 발표된 취지는 '판매'의 의미보다는 '보급'의 의미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음악을 알리고 그를 통해 포교를 이루기 위함이다. 음반 신청 / 010-9343-3001(자명 스님).

세계수영관계자도 "사찰음식 엄지 척"

고불총림 백양사, 쌍계루 일원서 수영선수권대회 사찰음식 만찬

불교의 청정음식을 세계 스포츠인에게 알리는 행사가 사찰에서 열렸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지)는 지난 7월 25일 경내 쌍계루 일원에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찰음식 만찬'을 개최하고, 대회에 참여한 세계 수영스포츠계 임원들에게 불교 고유의 식사법인 발우공양과 사찰음식을 대접했다.

사찰음식 대가인 정관 스님(천진암 주지)이 제철음식 재료를 직접 손질해 만들어낸 7가지의 음식과 2가지의 차, 그리고 3가지의 후식으로 구성한 발우공양에 외국 스포츠인들은 연신 "아름다운 정신이 만들어낸 예술과 같은 음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사찰관람과 기념식, 발우공양 소개, 만찬, 후식, 연꽃차담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등 전통 국악공연도 함께했다. 이날 발우공양에는 샘 람사미 국제수영연맹(FINA) 부회장을 비롯해 150여 명의 세계 수영연맹 임원들이 참여, 한국불교의 독특한 식사법을 체험했다.



백양사 사찰음식 만찬에 참여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계자들.

이날 직접 음식을 만들어낸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은 마음과 육체적 에너지가 연결된 음식이고,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관 스님은 직접 김치를 담그는 것을 시연하고, 화덕에 멥쌀을 곁들인 감자밥과 능이버섯 콩나물국, 평창올림픽 배추김치, 토마토 장아찌, 송이버섯 솔잎구이, 우엉간장 조청구이, 연근 오미자청 절임, 갯방풍나물잡채를 찬으로 하고, 백양사 비자숲 황차, 솔잎차 등을 만들어 대접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고불식

7월 30일 포살법회도 "한국불교 중흥" 다짐



해남 대흥사는 7월 30일 대웅전에서 '불기 2563년 하안거 포살법회'와 주지 고불식을 봉행했다. 주지 법상 스님은 "대흥사 사부대중 화합과 불교발전이라는 큰 원력을 바탕으로 사심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맞게 살겠다"며 "대흥사가 호국도량으로서 종지를 구현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문화 이해 돕는 어린이캠프

전주 참좋은우리절, 유치원 · 초등학생 대상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7월 26~28일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캠프를 개최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다문화가족 어린이, 지도교사 등 70여 명이 참가한 캠프는 지도법사 진서 스님 지도 아래 창의력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발우공양, 역할극, 미니올림픽, 물놀이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조계종, 하안거 수계법회

구족계 8명, 사미계 2명, 법사계 6명 배출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7월 21일 여주 백화사에서 스님과 불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안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식에서는 구족계 8명, 사미계 2명, 법사계 6명 등 총 16명이 계를 받았으며,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역사를 돌아보면 수차례의 일본 침략 때마다 불교계가 앞장서 나라를 지켜냈다. 이번 경제보복도 힘을 합쳐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16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개강일시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교육장소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수강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교육기간 6개월 과정
교육내용 상용의식 및 재의식 사물 다루는 법
수강자격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수강료 월 10만원 / 교재비 별도
준비물 필기도구 및 녹음기
문의전화 010-3867-8419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 원명 합장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